



국내외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방향, 전략 및 사례

국내의 주요 물류기업들 중 16개 기업이 '종합물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기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업을 비롯하여, 물류기업들이 국내시장 규모만을 바라보고 경쟁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해외진출을 꾀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물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불과 30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을 외치는 우리의 물류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국내 시장이 아닌 중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국제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21세기에는 북한, 아시아, 중국의 항만, 도로, 철도 등 하부구조를 크게 성장시켜, 권역 운송을 광역화하고 복합운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물류시장의 개방을 통한 외국 운송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물류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생존 대응능력은 있는가?" 하는 의문은 종합물류기업들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외국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국내의 우수 물류기업들이 많다. 그 중 몇몇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한통운, 글로벌비스, 한솔CSN, 현대택배, 한진, 현대상선 등은 해외현지법인화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이번호에는 "국내외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방향, 전략 및 사례"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의 해외진출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략에 대해 물류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본다.

■ 글로벌비스

글로벌비스는 자동차산업 물류서비스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물류관리 기법과 첨단 물류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3자 물류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영역 및 규모를 점차 해외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인도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8월 인도 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물류시장을 분석, 법인 설립을 추진한 결과, 물류법인 글로벌비스인디아(GLOVIS INDIA)를 설립했다.

이외에도 아메리카 지역의 글로벌비스 아메리카, 글로벌비스 엘라베마, 유럽지역의 글로벌비스 슬로바키아, 글로벌비스 유럽, 글로벌비스 유케이, 글로벌비스 터키, 호

주지역의 글로벌비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북경글로벌비스, 강소영창 글로벌비스 등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게 된 글로벌비스는 앞으로도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글로벌 SCM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대한통운

대한통운(대표 이국동, www.korex.co.kr)은 최근 중국 상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코렉스 차이나(Korex-China Co.,Ltd.)'라는 이름의 이 합작법인은 총 자본금 100만 달러(US\$)이며 대한통운과 자회사



인 대한통운국제물류가 6대 4 비율로 합작투자해 설립됐다. 중국 현지법인명은 '한통물류(상해)유한공사' (韓通物流(上海)有限公社)이다.

지난 1월 베트남의 코렉스-사이공 로지스틱스(KOREX-SAIGON LOGISTICS Co., Ltd.)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 중국법인 설립은 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중국 전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한-중-일은 물론 중국-미국, 중국-동남아 등 해외국가 간 이동물량에 대한 글로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홍콩, 일본에 이어 미국 내 9개 직영점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중남미와 유럽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현대택배

현대택배(대표 김병훈)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앞장서면서, 국내최초로 중국에 진출, 중국 전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국지역의 물류에 강한 기업이다.

현대택배의 경우 이미 지난 2003년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해운·항공 1급 포워딩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중국 상해에 현대아산을 설립해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중국 최

대 물류기업인 시노트랜스(대표:장빈)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국 전역의 종합물류사업으로 돌입하면서 물류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택배는 중국에 북경사무소를 개설하고, 북경·천진·상해·청도·대련 등 중국 5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중 국제택배와 5대 도시간 내륙 택배를 실시 후 조만간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중국 물류를 전담할 합자법인을 설립해 2010년까지 중국 굴지의 종합물류회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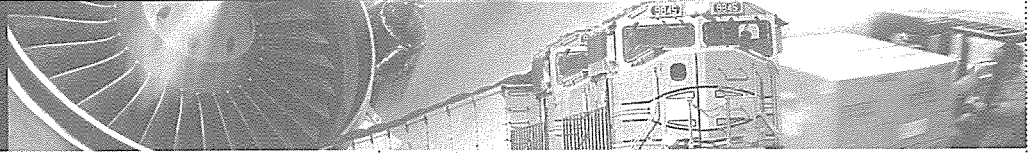
아울러,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a Railway)의 오랜 운영노하우를 보유한 시노트랜스와 연계해 TCR 운행 구간 내 주변 국가와의 물류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한솔CSN

한솔CSN은 지난 2006년도 시무식에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 전략을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정했다.

해외 83개사 파트너를 통해 전세계 63개국 100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해상, 항공 등 국제복합운송수단을 통한 수출입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솔CSN은, 2006년을 비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글로벌 서비스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고 해외사업을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솔CSN은 글로벌 시장추진에 있어 핵심 과제로 ▲글로벌 신규 시장 개척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구축 으로 정했다.

한솔CSN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이미 작년 9월부터 삼성테스코 홀플러스의 중국 소싱물류를 시작으로 중국물류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올해는 중국 남부지역의 주요 거점인 심천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중국 물류사업 런칭과 해외물류사업 대상지역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지속적인 해외 우량 파트너와 제휴를 추진하고, 고객 위주의 운영 거점 확보와 합자법인 설립도 검토하는 등 해외사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현대상선

현대상선(www.hmm21.com)이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인도에 현지 법인을 지난해에 설립했다. 인도 뭄바이(Mumbai)에 현지법인(HYUNDAI MERCHANT MARINE INDIA PRIVATE LIMITED)을 두었으며 산하에 델리(Delhi), 첸나이(Chennai) 및 나바셰바(Nhava Sheva)항 지점을 두고 주재원 및 현지직원 100여명이 인도 지역의 화물유치 영업, 선박운항, 각종 기기 관리 및 선적 서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대상선은 1995년부터 인도 뭄바이에 지점을 개설

하고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면서 인도에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영업망을 계속 확대해 왔으며, 올해 초에는 인도지역 벌크화물 영업 강화를 위해 본사에서 주재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인도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었다.

현대상선은 인도법인을 비롯하여 미주, 유럽, 중국, 동서남아 등 4개 지역본부 외에 23개 해외법인, 67개 지점, 6개 사무소의 명실상부한 글로벌한 세계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 (주)한진



한진의 현지법인은 미주의 경우 현지법인 한진 인터내셔널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하와이, 토론토, 밴쿠버 등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유럽에는 독일과 영국에 영업소가 있다.

국내기업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중국지역에는 중국 전역 현지법인 '청도한진육해국제물류유한공사'와 위해, 대련, 천진, 상해에 영업소가 있다.

한진은 세계 260여 개국, 세계 물류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해상/항공 포워딩 사업, 국제택배 사업 전 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류**